

하나뿐인 내생명을 내가 지킨다.

(주)대우건설

경춘선 복선전철 8공구 노반신설공사현장

“춘천,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민태원님의 청춘예찬의 첫머리를 춘천이라는 도시에 적용한다는 것이 너무 확대 포장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젊은 시절 이러한 추억이 하나쯤 있을 춘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이 동감해주시리라 믿는다. 물의 도시인 춘천에 봄 꽃길을 따라가는 길은 아름다운 풍광이 어린,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취재 길이다.

이번에 찾은 취재현장은 (주)대우건설에서 시공중인 경춘선 8공구 노반신설공사현장(소장 신태은)이다. 이현장은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으로 200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이 약 10% 진척된 상태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개발 촉진, 열차 운행시간의 단축(무궁화호 기준 32분) 및 평면 교차전널목의 입체화를 통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 공사가 완료되면 한결 편안한 춘천을 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안전모는 생명의 은인

199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무재해 2배 달성(2001.

5.22 계속) 안전보건 우수사례공모 최우수상 수상(2001. 12. 8)이 빛나며,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타의 모범이 되는 이 현장을 총지휘하는 신태은 소장에게 안전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1981년 대우에 토목기사로 입사하여 리비아, 수단 등 해외공사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 수많은 국내·외 현장을 경험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

한 동기는 해외 근무 시절인 1984년에 입사 동기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영안실에 동료의 죽음 옆에서 흐느끼는 약혼녀를 보았을 때, 이것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전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신소장도 해외 리비아현장에서 약 15m 교량의 교대 거푸집 작업중 최추가 떨어져 머리에 맞은 일이 있었다면서, 「안전모가 없었으면 오늘 제가이 자리에 앉았지 못할 겁니다」라고 신소장은 안전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였다. 그리고 무슨 공사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담당기사가 제일 잘 안다. 안전관리의 비결은 사전 위험요소 예방공법의 선정과

담당기사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철저한 계획과 사전검토를 통한 안전실현

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입사후 지금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시준 대리는 “건설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어디에서 뭐가 날아올지, 무너질지, 감전될지 모르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많은 산업전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숨져 갔으며,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라며 작업장에 숨어있는 많은 적(위험요소)으로부터 나와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한눈을 팔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한다. 또한 안전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사전검토 및 대비와 조치가 필요하며, 설계단계부터 안전의 개념이 부여되어 공사종료시까지 PDCA의 사이클에 의해 지속적인 Up Grad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전관리 업무란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정도(正道)가 있는 것도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경험에 의해 성과가 판가름되는 것이 많다. 현장 안전순찰과 사무실 서류내부업무 등 업무과중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심이 스트



레스이지만 작업장에 나갔을 때 밝게 웃으며 친근하게 인사하는 근로자들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현장내 안전관리 기법으로는 체험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근로자들 특히, 신규채용자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음주 측정기를 소지하여 근로자의 음주상태 측정을 통해 철로변 작업시 안전사고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또한 삼포천교의 코핑(Coping)부위의 점검통로 사전설치, 철근조립작업대 및 철재 거푸집 등 조립형 작업대 사용 등 안전시설을 통해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현장내 난(難)공사인 철도 운행선 인접공사는 운행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방호울타리 설치, 안전요원 상주 등의 안전대책과 철도청에 선로차단공사 사전승인과 공사구간 서행을 위한 사전조치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안전 챔피언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근로자와 안전관리자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은 신태은 소장에게 들어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가장





초일류 현장 탐방

중요함을 잊고 돈을 위해서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은 내가 지켜야 지누가 대신 지켜줄 수도 없으며 보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는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항상 깨어 있는 정신으로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 준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임'인 안전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합니다.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 준다는 생각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현장 구석 구석을 순찰하고 계획을 세워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적인 면(안전한 공법)에 대해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전파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불안정한 요소가 유발하지 않는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주)대우건설에는 안전 챔피언이라는 제도가 있다. 현장 소장이 무재해에 대한 안전기록을 계속 가지고 다녀서 일정 기준이



상이 되면 안전 챔피언이 된다고 한다. 신소장도 이전 고속철도에서의 무재해 기록을 계속가지고 와서 현재까지 무재해 진행 중이다. 다음 기회에 현장 무재해 기록 달성과 신소장의 안전 챔피언 등극의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본다.

기사 : 오영수
사진 : 최종덕

